

2008년 9월 29일(월)

박현욱(Park John)멕시코선교사 기도 편지
(핸)52-1-55-2769-9079, (집)52-55-5535-0592
GUILLERMO PRIETO No.82 DEPTO 505 , COL. SAN RAFAEL
CIUDAD DE MEXICO, DF C.P.06470

“말씀이 왕되는 멕시코의 젊은이들을 주옵소서”(잠29:18)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귀한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이곳 멕시코 시티는 6월, 7월, 8월은 우기입니다. 멕시코에서 처음 맞는 계절에 조금 낯설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선교서신을 준비하고 있는 창밖으로 비에 젖어 불빛에 반짝이는 멕시코 시티가 보입니다. 이곳 멕시코시티의 우기에는 거의 매일 비(오후에서 밤사이)가 오고 아침 저녁은 마치 늦 가을처럼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아직 날씨와 음식과 환경에 적응이 안되서 그런지 지난 6월 말경에 한 1주일 동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귀한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을 다녀 오고 지금은 몸조심하면서 우남대학교 부설 여학원인 세페를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 이번 학기가 끝나고 10월 13일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멕시코시티에 와서 몸이 적응하는 값을 치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멕시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스페인어가 들어오고 주변에 멕시코 인들과 교제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월7일(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처로 이사했습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집기들을 형편이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외국인의 외출-특히 어두울때는 주의해야 하기에 이곳 지리에 익숙한 한국 젊은이의 도움으로 집을 소개받고 보증도 서주어서 무사히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차량으로 이사를 도와주어서 아직 여행객의 신분인 제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 여행자 신분에서 안정적인 정착신분(FM-1,FM-3)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고 멕시코 시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조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PARK HYUN WOOK, GUILLERMO PRIETO No.82 DEPTO 505 ,COL. SAN RAFAEL , CIUDAD DE MEXICO, DF C.P.06470< (핸)52-1-55-2769-9079, (집)52-55-5535-0592 >

4. 이미 말씀드린대로 멕시코 선교사로 출발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18-21, 잠언29:18, 엡4:11,12,마28:19,20입니다. 제가 멕시코를 향해 나아오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3가지의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선교를 모델로 삼고 도시를 저의 선교의 중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언어를 공부하면서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인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멕시코 시티의 치안과 교통상태는 주의를 요합니다. 멕시코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멕시코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먼저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 우남대학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멕시코시티에 있는 멕시코 한인기독교청년 모임과 교제하며 멕시코 신학교의 학생들과 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젊은이들과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세 번째는 멕시코 현지교회와 현지 선교사님들을 섬김을 통해서 현지 교회의 지도력을 세우는 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멕시코 시티의 선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교회들의 동역과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곳 현지 선교사들과 현지교회와 좋은 관계 속에서 멕시코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섬김의 방향은 현장을 계속 탐색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섬기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우남대학부설 언어교육원 (세페)에서 지난 8월13일부터 학기가 시작되어 10월2일(목)에 학기가 끝나고 10월 13일(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세페에 나가 언어교육을 받고 주변에 멕시코인들과 조금씩 교제하면서 스페인어에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멕시코에서 할 우선적인 멕시코 선교사역의 중요한 통로가 언어와 젊은이들입니다. 이곳 세페에서의 교육기간이 약2년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잘 교육받으면서 멕시코 젊은이들과 귀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귀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지난 9월25일(목)에 이곳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멕시코 젊은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정기적으로 목요일 오후에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을 메리드이며 현재 멕시코의 우남대학교(멕시코 시티에 있는 멕시코에 국립대학교 중의 하나)에서 영양학을 전공하며 내년 봄에 졸업한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멕시코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저의 집에서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작이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귀한 멕시코의 젊은이들이 저의 집에서 모임이 일어나 말씀이 왕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시작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 멕시코 시티에 한국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든 백기청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들은 멕시코 시티에 12개의 한인교회의 젊은이들이 영적부흥과 각성을 위해 모인 자발적인 모임에 지난 제가 지난 6월부터 초대 되어 교제하며 한달에 1-2번씩 설교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멕시코 젊은이들과 좋은 연결고리가 되며 저의 사역에 좋은 동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이곳 멕시코 시티에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작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곳에 가서 가르치면서 이들 멕시코 신학생들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듯합니다. 이곳 멕시코인 선교사(WEC 선교회 파송)가 요청하고 아직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8. 저를 위해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1)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만남에 우선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기록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 2) 여행자 신분비자에서 장기적 거주 비자신분과 안정적인 선교준비환경을 위해
- 3) 스페인어를 익히는데 진보가 있고 언어습득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함께 하는 이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멕시코 우남대학교 부설 세페 어학원)-이번 학기가 10월2일에 끝나는데 계속해서 다음 학기에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 4)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 멕시코 젊은이들과 멕시코 사역자들, 현지 동역선교사들, 그리고 공동체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 9월 25일(목)에 시작한 모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 멕시코모임과 멕시코 신학생들과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 5) 멕시코시티에서의 안전한 이동과 차량을 위해서

9. 박현옥멕시코 선교사 후원계좌는 신한 110-021-696777 (박현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11-219-5733박현옥(멕시코로밍중), 001-52-1-55-2769-909(박현옥,멕시코현지핸드폰, 현지사택전화 52-55-5535-0592) 02-2665-2158(한국집),이메일(isspark@naver.com)로 부탁드립니다.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을 주시면 선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박요한 선교사 2008. 9. 29일

(밑의 사진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세페, 그리고 소칼로 광장입구)

